

열린 공간 · 소통의 장으로

국립전주박물관 올 주요업무계획

조선 왕실 등과 관련 콘텐츠 개발 박물관 안전시설 편의시설 확충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올해 박물관 운영 방향을 '지역민을 위한 열린 공간, 소통하는 박물관'으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한다.

박물관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전북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심도 깊은 특별전 개최를 비롯해 조선 왕실·선비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서사문화 공간으로의 특성화,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 및 박물관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둔다.

먼저 특별전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시하고 있는 '쇠·철·강철의 문화사'를 시작으로 3개의 전시를 진행한다. 이어 4월에는 '전북의 가야' 특별전을 통해 전북의 가야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6월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 특집전을 개최한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쇠·철·강철의 문화사'.

또한 전라도 정도 1000년(고려 건국 1100년) 맞이하여 '고려청자' 특별전을 마련,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설전시로는 조선 왕실·호남지역 조선 선비문화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실을 서사문화 공간으로 특화한다. 특히 영남의 선비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풍요로운 전북의 선비문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 성과를 반영한 단행본을 발간하고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어린이박물관과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시대에 맞춰 어린이·가족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일반인과 65세 노인 및 문화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김승희 관장은 "지역민과 소통하는 박물관으로서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해 국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며,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박물관 안전시설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박물관 관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우리지역 무형문화재 명인들을 만나러

전주문화의집 25일부터

전주문화의집(삼천·효자·인후·진북·우아)은 오는 25일부터 '2018 전주명인과 함께 하는 지붕 없는 문화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특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주지역 무형문화재 명인들로, 각 문화의집 권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이들로 구성된다. 한지발장의 한지발장 유배근(25일 삼천문화의집) 명인을 비롯해 지승제조의 지승장 김선애(26일 효자문화의집), 낙죽의 전주낙죽장 이신임(27일 우아문화의집), 합죽선의 선자장 엄재수(21일 진북문화의집), 단선의 선자장 방화선(23일 선자장 방화선이 공예시연 및 체험에 함께 한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작가들의 아트마켓과 공예체험, 거리공연 문화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버스커즈팩토리의 생활문화공연, 전문예술단체 극단 명태의 뮤지컬갈라쇼 공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의집 관계자는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명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연 및 체험은 무료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무술년 뽕파와 함께 GO~ GO~



정읍시립국악단 신년 특별공연 24일 연지아트홀서 선착순 무료

정읍시립국악단이 신년맞이 특별공연을 갖는다.

시립국악단은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오는 24일 저녁 7시 연지아트홀에서 '무술년, 뽕파와 함께 GO GO'를 공연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람을 당부했다. 선착순 무료 공연으로 진행된다.

연주부에서 실내악 연주로 '하리랑'과 '서른 즈음에', '추상' 등을 들려주고 무용부는 장고춤과 옛가위춤 등 전통 춤사위를 보여준다.

창극부는 웃음과 해학이 담긴 단막창극인 '뽕파전'을 선보인다. 지난해 말 문화예술발전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왕기석(시립국악단장) 명창이 주인공으로 나서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는 시립농악단도 함께 한다. '복(福)드림 사물놀이 판굿'으로 신명나는 판굿 한마당을 펼쳐 흥겨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시립국악단의 가족창극 '쪽빛황혼'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 주관한 '2018년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국공립단체 우수작품'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작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정읍의 예술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 만큼 수준 높은 공연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연작품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쪽빛황혼'은 시립국악단이 지난 2015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이다. 더불어 살았던 건강한 공동체 시절을 그리워하는 연가(戀歌)로서, 풍물과 굿, 탈춤, 민요,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문화가 녹아있는 작품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통의 상징 '아버지' 순응 하지 않는 '아들'

국립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브랜드 '운림산방-구름으로 그린 숲' 내달 2~3일 민속국악원서 무대

진도 지역의 전통 공연예술을 집약시켜 가무악극으로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던 '운림산방-구름으로 그린 숲'이 남원 시민들을 찾는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지역별의 교류 확대 및 관객 개발을 위해 국립남도국악원의 브랜드 공연 '운림산방-구름으로 그린 숲'을 오는 2월 2~3일 남원 민속국악원 예원당 무대에 올린다.

진도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해 무대에 집약시킨 이번 작품은 지난해 국립국악원과 국립부산국악원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한 바 있다.

작품은 진도 지역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종화(南宗畵)·붓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먹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한 산수화의 종류) 화가에 관한 이야기로, 추사 김정희가

암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그림이 없다고 극찬한 애제자 허련과 그의 넷째 아들인 허형과의 부자 관계를 담고 있다.

극은 전통을 상징하는 아버지 '허련'과 그에 순응하지 않는 아들 '허형'의 갈등을 그린다.

진도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공간과 가상의 시간 속에서 떠나는 아들 부자의 여정에 진도가 품은 아름다움이 특유의 전통 공연 예술과 어우러지며 화려한 무대를 수놓는다.

공연은 진도북춤·강강술래·진도아리랑·씻김굿·남도들노래·남도잡가 등 진도 민속 예술의 악기부 일체와 정수를 40여명의 국립남도국악원의 기악단·성악단·무용단원이 전한다. 화려한 영상과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함께 조화를 이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다수의 뮤지컬과 콘서트의 무대감독과 연출을 맡은 김삼일이 총연출을, 소리극과 뮤지컬 및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 개막식 등의 극본 및 구성을 맡은 강보람 작가가 대본을 맡았다. 음악에는 뮤지컬 김중욱 찾기 등의 작곡을 맡은 김혜성 작곡가가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과 호흡을 맞췄다.

김삼일 연출가는 "이야기 갈피마다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진 서화와 진도의 전통 공연 예술에 얽힌 아름다운 삶을 담아내고자 했다"면서 작품은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을 일깨우는 한편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져줄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 예약은 전화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한민한국)

구분	금액
01 후원금 사용내역	
01 위익계층 맞춤형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